

“탄핵선고 지켜보자” 오늘 5·18민주광장 뜨겁다

광주시민 오전 11시부터 생중계 함께 보며 염원 인용 맨 축제의 장...전남 곳곳 탄핵 촛불집회 열려 기각 맨 트랙터 상경 투쟁 등 촛불 거세질 듯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은 촛불의 승리를 마추는 시민들의 환호로 가득 찼다. 이대 속에 광주 시민사회는 ‘만약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18차례나 광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열어온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은 국민의 명령”으로 확산하면서 “탄핵 인용은 부역자 청산의 시작점”이라며 촛불 집회를 당분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대형 스크린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시간 전인 10시부터 5·18광장에 설치하고 시

민들과 함께 역사적 순간을 TV생중계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시민 기대에 부응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이는 박근혜 정권 부역자인 재벌, 우병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단체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시민 기대와 달리 각하나 기각이라는 결정과 마주할 경우를 대비해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5·18광장, 금남로, 금남공

원에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시민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농민 단체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재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경우 곧바로 미리 준비해둔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투쟁할 방침을 세웠다. 오윤은 박근혜 퇴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전남 지역민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확신하고 농

민들과 함께 승리대회를 열기로 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장흥군, 영광군 등 전남지역 7개 시·군 농민 100여명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투쟁에 나서기로 계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가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자 순천, 나주, 여수 등 전남지역 14개 시군 주민들은 9일 저녁 주요 거리나 광장에서 긴급 촛불집회, 1인 시위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몹쓸 남친들

10대 여친 성매매 시키고 돈 챙겨 성병 걸려도 강요...3명 실형 선고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후배의 여자친구인 A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한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배 정씨는 지난해 2~6월 전국 모텔촌을 돌며 후배 한씨와 정씨의 여자친구인 A(17)양과 B(17)양을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5개월간 1차례에 평균 13만원씩, 총 523차례 성매매를 통해 모두 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후배 한씨와 정씨에게 500만~70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했다. 정는 A양 등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강진서 또 AI

10여일새 3번째 발생

강진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지난달 26일 이후 강진에서만 3번째 발생이다. 전남도는 9일 강진 오리농장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1만70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농장 반경 3km 안에 다른 사육 농가는 없다. 강진에서는 최근 11일 사이 3건의 AI가 발생해 수평전파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26일 발생 농장과 20.3km, 지난 5일 발생 농장과 14.6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수평전파보다는 철새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과 함께 방역 조치를 했다.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는 10일까지 완료하고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봄맞이 대청소 즐거워 9일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 광주시 북구 공무원과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와 유리창에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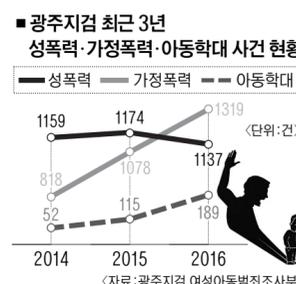
아동학대·가정폭력 급증에...광주지검 처벌 강력해졌다

사회문제 인식에 신고 늘어 전담부서 신설 등 기소 강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했다. 아동학대는 광주·전남에서만 2년새 3.6배, 가정폭력은 1.6배 증가했다. 이는 가정문제로만 여겼던 이들 사건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관심과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 이들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가 아동학대 11배, 가정폭력 3.5배 늘어났다.

9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인근 전남(나주·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함평)에서 접수된 아동학대는 189건이었다. 2014년 52건, 2015년 115건과 비교하면 2년새 3.6배 증가한 수치다. 처벌은 더 엄정해졌다. 2014년 5건(구속 1·불구속 4)에 불과했던 기소 건수가 2015년 16건(구속 5·불구속 11), 지난해 56건(구속 15·불구속 41)으로 2년새 무려 11배이상 늘어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도 강화됐다. 가정폭력은 같은 기간 각각 818건, 1078건, 1319건 접수돼 2년새 1.6배 늘었지만, 기

소 건수는 2014년 27건(구속 5·불구속 22)에서 2015년 36건(구속 18·불구속 18), 지난해 94건(구속 16·불구속 78)으로 3.5배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가족해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도 줄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건 인원은 2014년 1159명(구속 76·기소 374), 2015년 1174명(구속 69·기소 430), 2016년 1137명(구속 82·기소 490)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들 범죄의 특



성상 신속 수사에 대한 요구가 높고, 사회·심리적 약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진술 반복·합의 중용 등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통지제도

는 사건 송치 직후 검찰이 먼저 연락해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듣고, 추가 피해 등 증거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곡성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드물게 살인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오정희 부장검사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밖으로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범죄가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 처벌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설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피해 여성 입술서 DNA ‘딱 걸렸네’

○...모텔에 투숙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종업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해 여성의 입술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돼 철장형.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 종업원 이모(39)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일하는 모텔 객실에서 여성 투숙객 A씨의 얼굴과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입을 맞추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8일 구속.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이씨는 객실 문이 살짝 열린 채 잠이 든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완강히 부인했는데, 검찰은 A씨의 입술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싸고, 투자, 가치있는 물건, 사정상 매매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 1260 - 2 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평당 35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